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유럽 은행 · 정부 재정상태,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협

- IMF는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,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선진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.
  - 향후 2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 세계 금융회사의 부채규모가 3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  -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나,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시장의 앞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.
- IMF는 또한 유럽 은행의 건전성 및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악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함.
  - 유럽 주변부 국가인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의 국채발행 여건이 상당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유럽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정해짐.
    - IMF의 경제성장 전망과 이들 국가들의 국채 만기 등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현재보다 각각 249bp, 149bp, 117b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.
  - 서유럽 국가들은 일부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  - 오스트리아, 영국의 일부 은행들은 대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의 일부 은행들은 기본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함.
- 유럽 금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, 은행의 자본 확충과 체질 개선, 유럽 각국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 - 작년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자본이 정의됨으로써 엄격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.
  - IMF는 은행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 보강, 구조 조정, 보유 리스크 공개 강화, 재무건전성 취약 은행 대상 조기 해결책 마련 등 정부의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(Bloomberg 4/13, IMF 4/13)